

[E14-or] 여성위원회 강연 - 정란주(광운대)

시간: 2017 년 10 월 26 일(목) 14:00 ~ 15:48

장소: 300B 호

2017 년 가을물리학회 여성세션의 주제는 "여성물리학자의 삶"입니다. 선배 여성물리학자로 경험한 다양한 경력을 신진 여성물리학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미 물리학자의 길로 들어선 여성물리학자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여성물리학자인 대학원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부총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연사님과 국회의원과 국공립연구소 원장님을 지내신 연사님을 힘들게 모셨습니다. 두 분의 강연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14:00 – 14:05 인사말 및 여성위원회 활동 소개

14:05 – 14:35 김영순(명지대)

14:35 – 15:05 박영아 (전 KISTEP원장, 명지대)

15:05 – 15:15 다과 및 토의

[초록]

14:05-14:35

여성물리학자? 평생물리학도!

김영순 (명지대)

물리학도로 첫발을 내딛은 1971년부터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를 돌이켜보며, 남송시대의 유학자 주희의 한시 몇 구절을 재배열하니 현재의 마음이 표현되었다.

"階前梧葉已秋聲"(섬돌 앞의 오동 잎에는 벌써 가을의 소리)인 때에

"少年易老學難成"(나이를 먹기는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구나)임을 되새기며,

"日月逝矣歲不我延"(날과 달은 가고, 나 역시 그러하니)

"嗚呼老矣是誰之愆"(아!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쌓여만 가니 정년퇴임 후에는 훨훨 자유롭게, "여성학자"라기보다는 "평생학도"로 지내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다.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여성물리학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으나, 나름대로 한 시대를 살아가며 고군분투했던 나의 지난 날이 후학들에게 작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4:35-15:05

Developing Gender Indica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from National Innovation Systems (NIS) Perspective

박영아 (전 KISTEP원장, 명지대)

During the last few years, gendered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came into spotlight as

it not only improves equality among the people in S&T, but also ensures scientific excellence. Although many studies in gendered innovations have been conducted, limited systematic policy package has been developed. In the field of innovation research, measuring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indicators have been significant issues. In this context, we will propose a practical framework which could be used to develop indicators related to gendered innovations by using the concept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nd categorizing the elements shaping gendered innovations in a system. In addition, this research derives indicators to reveal national capabilities of gendered innovations from the framework and suggests an indicator system, called Gendered Innovations Index (GII).